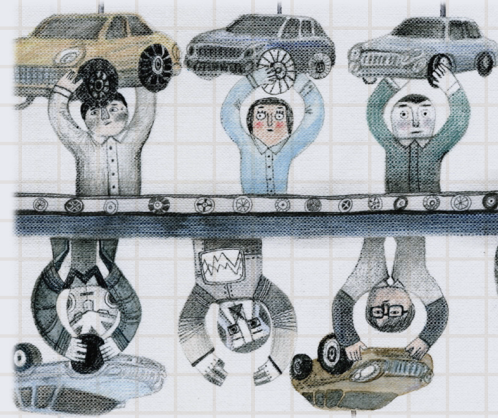




짜각짜각 변신로봇

글 · 그림 나두나 / 책고래



짜각짜각,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 ‘변신로봇’에 비친 우리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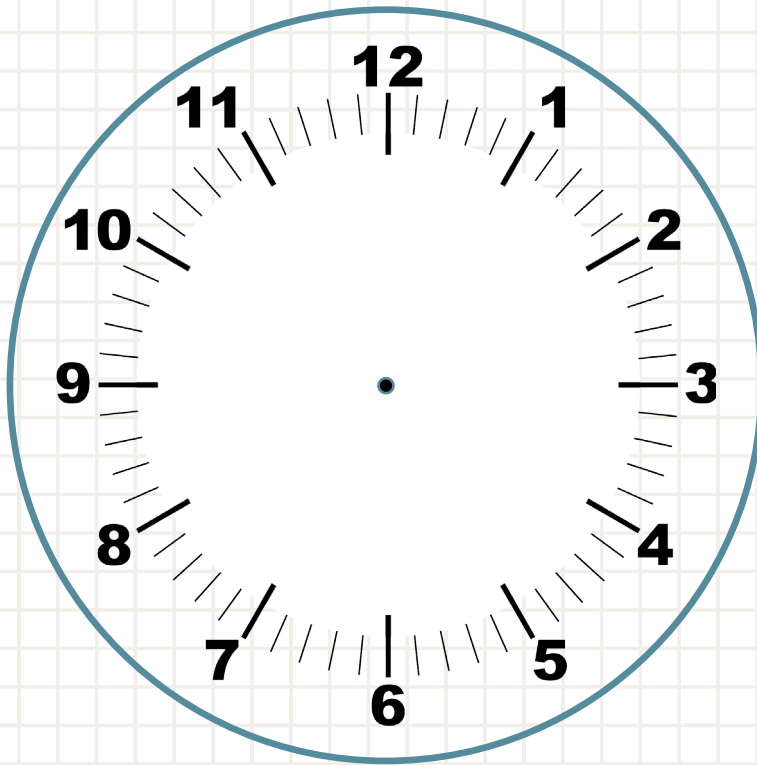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을 ‘로봇’의 모습으로 그려 낸 그림책입니다. 바쁜 출근길을 지나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다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사람들의 모습을 ‘변신로봇’으로 그렸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버스를 이용할 때도,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볼 때도, 퇴근하면서 회사 건물을 나설 때도 변함이 없어요. 꼭 ‘로봇’처럼 말이지요. 《짜각짜각 변신로봇》은 나두나 작가의 2016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수상작입니다. 발랄한 인상의 제목과는 달리 그림은 차분하게, 그리고 묵직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작가는 장면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대신 의성어만으로 표현했어요. 피곤한 하루를 깨우는 알람 소리가, 도시의 시끌벅적한 소음이, 고요한 사무실을 채우는 타자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하지요. 이 소리들을 따라 독자들은 더욱더 그림책에 담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찬찬히 주위를, 그리고 나를 살필 여유를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잠깐 멈추어 선 사이 남들보다 뒤처지진 않을까 나도 모르게 전전긍긍하게 되지요. 하지만 한번쯤 짚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정신없이 달리면서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말이에요.

독후 이해 활동

📖 책 속에 나오는 다양한 소리는 무슨 소리일지 써 보고 주변의 소리도 적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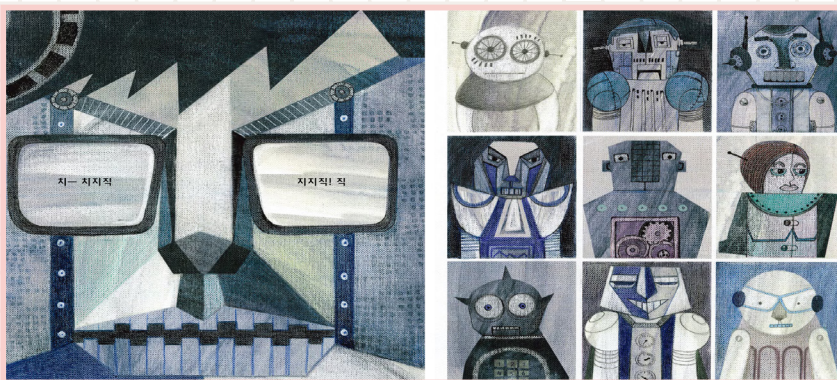
띠링띠링		드르륵 드르륵	
부릉부릉		위-잉 웅 위-잉	
짜각짜각		타닥타닥 타다닥	

Q 나의 하루를 시간표에 적어보고 색도 칠해 예쁘게 꾸며 보아요.



독후활동 이어가기

Q 변신하고 싶은 모습의 가면을 만들어 보아요.



- ① 두꺼운 도화지를 얼굴모양으로 잘라요.
- ② 도화지에 변신하고 싶은 모습을 아래의 그림처럼 마음껏 그려 보아요.
- ③ 도화지의 양 끝에 고무줄을 걸어 가면을 만들어요.

📍 고양이와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이에요.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잡지에서 음식 사진을 오려 붙여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려 보아요.

